



2025년 미국인의 신, 죄, 구원에 대한 인식

미국 성인 63%,

‘혼자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 참석을 대체할 수 있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한국인의 주식투자 실태
- ② 베이비붐 1세대(1955~1963년생)의 노후 실태

2025. 11. 11.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미국 성인 63%, ‘혼자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 참석을 대체할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 주에 이어 한국교회에 참고가 될만한 미국 자료 한 가지를 더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 복음주의 단체 리고니어 미니스트리(Ligonier Ministries)가 목회 전문 조사기관 라이프웨이리서치를 통해 실시한 ‘리고니어 신학 현황 연구 2025’는 미국 성인의 신학적 신념과 인식을 분석한 조사 보고서이다.

조사 결과, 미국 성인의 절반(48%)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했으며, 3명 중 2명 가까이(63%)는 ‘교회 가지 않고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정기적인 교회 참석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응답해 신앙의 개인화 현상을 드러냈다. 또한 ‘성경에서 동성애적 행동을 비난하는 내용은 오늘날 적용되지 않는다’는 항목에 41%가 동의해 성경적 윤리 기준이 개인의 판단에 따라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넘버즈 310호>는 미국인의 신(神), 죄, 구원, 성경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현대 신앙의 ‘상대화’와 ‘세속화’를 진단하고, 한국교회가 복음의 핵심을 지키고 대응할 수 있는 실제적 통찰을 얻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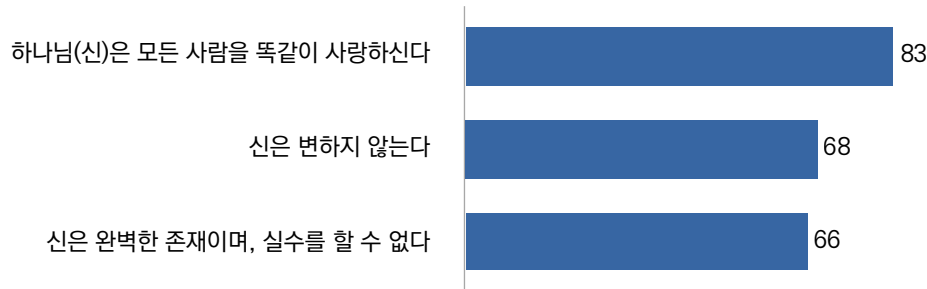
01

[신에 대한 인식]

미국 성인 3명 중 2명 이상, '신의 사랑과 완전성' 확신!

- 미국 성인(일반 국민)들의 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10명 중 8명 이상(83%)이 '신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한다'고 응답했다. 또, 3명 중 2명가량은 '신은 변하지 않고'(68%), '완벽한 존재며 실수하지 않는다'(66%)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상당수의 미국인이 신의 절대적 사랑과 완전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신에 대한 인식 1. (매우+약간 동의한다 비율*, 미국 성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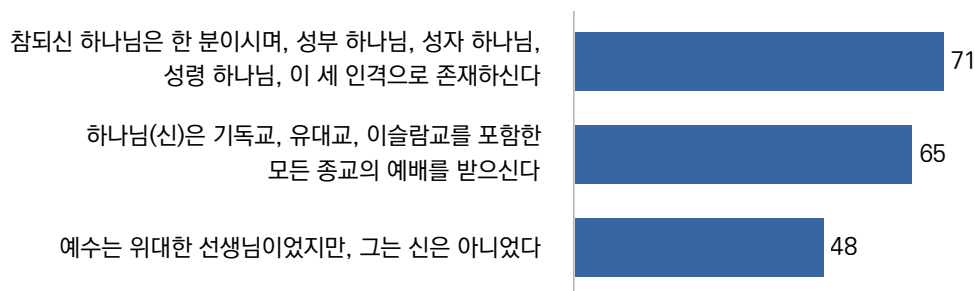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리고니어 신학 현황 2025'(Ligonier State of Theology 2025), 2025.09. (미국 성인 3,001명, 온라인 조사, 2025.01.06. ~01.15.)

*4점 척도

미국인 절반, '예수는 위대한 선생이지만 신은 아니다'!

- 미국인의 71%는 '성부·성자·성령, 세 인격으로 존재하는 참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3명 중 2명(65%)은 '신이 모든 종교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답했고, 절반가량(48%)은 '예수는 위대한 선생이었지만, 그는 신은 아니었다'에 동의해,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드러났다.

[그림] 신에 대한 인식 2. (매우+약간 동의한다 비율*, 미국 성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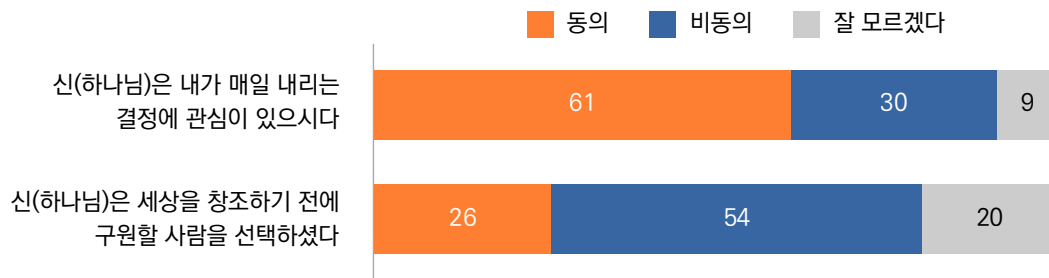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리고니어 신학 현황 2025'(Ligonier State of Theology 2025), 2025.09. (미국 성인 3,001명, 온라인 조사, 2025.01.06. ~01.15.)

*4점 척도

미국인 10명 중 6명, ‘신은 내 삶의 결정에 관심을 가지신다’!

- 미국 성인 10명 중 6명(61%)은 ‘내 삶의 결정에 관심을 가지신다’고 응답해, 하나님을 멀리 계신 초월적 존재가 아닌 내 삶의 동반자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4명 중 1명(26%)은 ‘신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구원할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믿어, 구원과 선택에 대한 예정론적 이해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신에 대한 인식* 3. (미국 성인, %)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리고니어 신학 현황 2025’(Ligonier State of Theology 2025), 2025.09. (미국 성인 3,001명, 온라인 조사, 2025.01.06. ~0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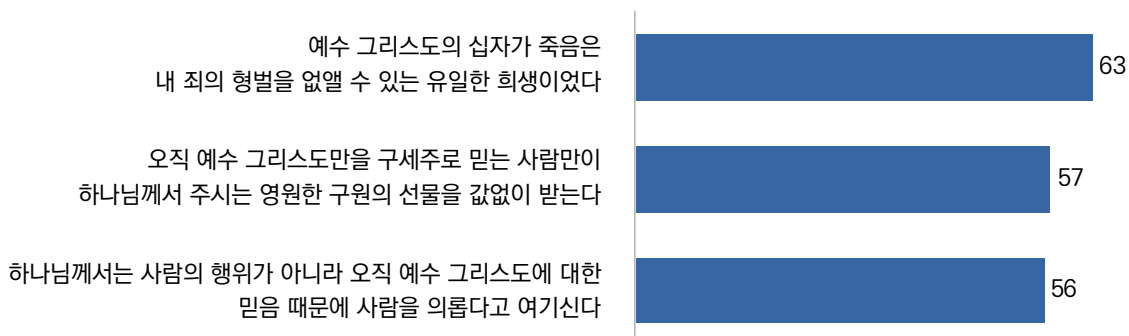
*4점 척도

02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인식] 미국인 절반 이상, ‘행위 아닌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사역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을 살펴본다. 미국 성인 3명 중 2명 가까이(63%)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의 형벌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희생’이라고 믿었으며, 절반 이상(57%)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영원한 구원을 값없이 선물 받는다’고 응답했다.
- 또한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신다’에도 56%가 동의해, 미국인 절반 이상이 ‘십자가 희생’,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는 복음의 핵심 교리를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했음에도 절반 이상의 미국인들이 예수와 구원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어 기독교 영성/가치관이 광범위하게 전국민 가운데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인식 (매우+약간 동의한다 비율*, 미국 성인, %)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리고니어 신학 현황 2025’(Ligonier State of Theology 2025), 2025.09. (미국 성인 3,001명, 온라인 조사, 2025.01.06. ~01.15.)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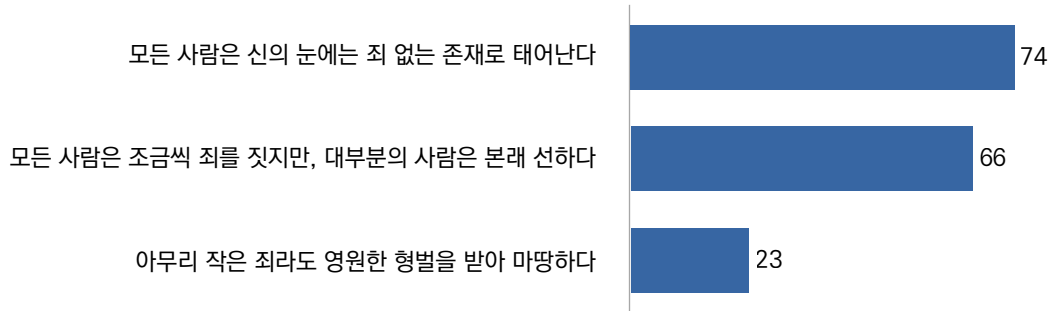
03

[죄와 심판에 대한 인식]

미국인 4명 중 3명(74%), ‘사람은 죄 없는 존재로 태어난다’!

- 인간 본성과 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미국 성인 4명 중 3명(74%)은 ‘모든 사람은 신의 눈에 죄 없는 존재로 태어난다’고 응답했고, 3명 중 2명(66%)은 ‘모든 사람은 조금씩 죄를 짓지만 본래 선하다’고 답해,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성선설’의 인식이 뚜렷했다.
- 반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항목에는 4명 중 1명(23%)만 동의했다.

[그림] 인간의 본성과 죄에 대한 인식 (매우+약간 동의한다 비율*, 미국 성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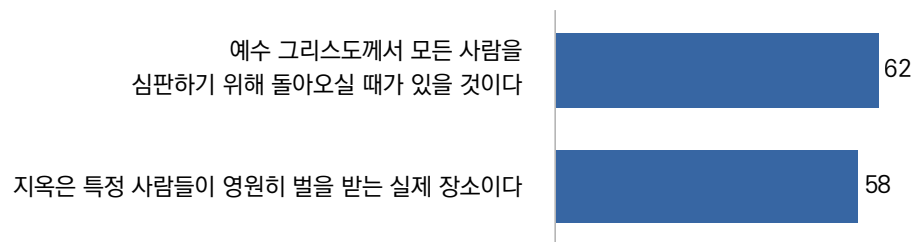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리고니어 신학 현황 2025’(Ligonier State of Theology 2025), 2025.09. (미국 성인 3,001명, 온라인 조사, 2025.01.06. ~01.15.)

*4점 척도

미국인 62%,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

- 미국 성인의 62%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절반 이상(58%)은 ‘지옥은 특정 사람들이 영원히 벌을 받는 실제 장소’라고 응답해, 미국 내 심판과 내세에 대한 신앙이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심판에 대한 신념 (매우+약간 동의한다 비율*, 미국 성인, %)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리고니어 신학 현황 2025’(Ligonier State of Theology 2025), 2025.09. (미국 성인 3,001명, 온라인 조사, 2025.01.06. ~01.15.)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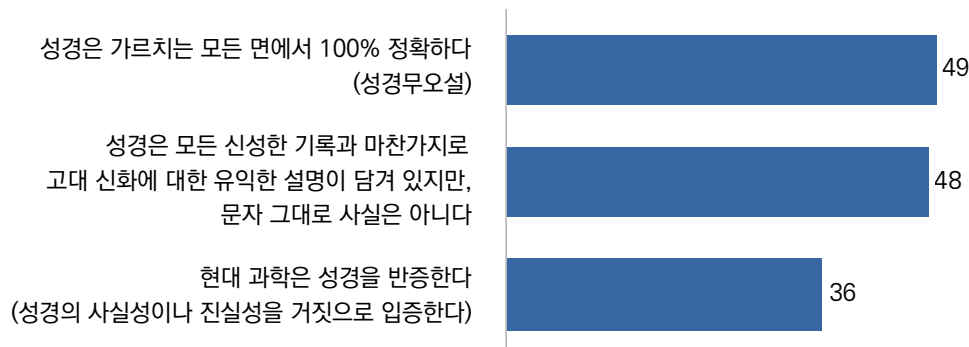
04

[성경에 대한 인식]

‘성경은 100% 정확’ vs ‘문자 그대로 사실 아냐’, 반반으로 갈려

- 미국인의 절반(49%)은 ‘성경은 가르치는 모든 면에서 100% 정확하다’(성경무오설)고 믿는 반면, 거의 같은 비율(48%)로 ‘성경은 고대 신화에 대한 유익한 설명이 담긴 기록이지만, 문자 그대로 사실은 아니다’라고 응답해 의견이 갈렸다.
- 또한 ‘현대 과학은 성경을 반증한다’는 진술에도 3명 중 1명 이상(36%)이 동의해, 성경의 권위와 사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인식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그림] 성경에 대한 인식 (매우+약간 동의한다 비율*, 미국 성인, %)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리고니어 신학 현황 2025’(Ligonier State of Theology 2025), 2025.09. (미국 성인 3,001명, 온라인 조사, 2025.01.06. ~01.15.)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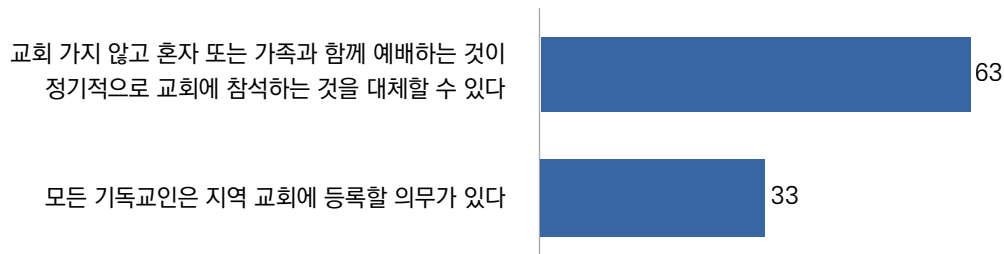
05

[교회 인식]

미국성인63%, ‘혼자서예배하는것이교회참석을대체할수있다!’

- 미국 성인 3명 중 2명 가까이(63%)는 ‘교회 가지 않고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 참석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응답해, 신앙의 개인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 반면, ‘모든 기독교인은 지역 교회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는 항목에는 3명 중 1명(33%)만 동의해,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낮았다.

[그림] 교회 공동체와 예배에 대한 인식 (매우+약간 동의한다 비율*, 미국 성인, %)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리고니어 신학 현황 2025’(Ligonier State of Theology 2025), 2025.09. (미국 성인 3,001명, 온라인 조사, 2025.01.06. ~01.15.)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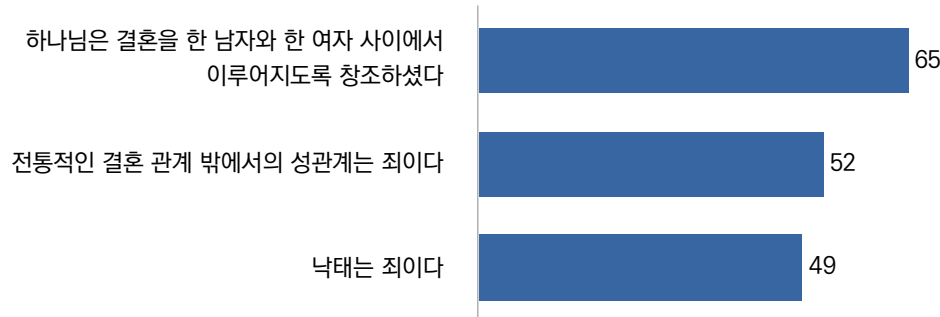
06

[사회윤리 인식]

‘하나님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도록 창조했다’ 65%!

- 결혼·생명 등 사회윤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미국 성인의 65%는 ‘하나님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도록 창조하셨다’고 응답해, 전통적 결혼관을 지지하는 인식이 우세했다.
- 반면, ‘전통적인 결혼관계 밖에서의 성관계는 죄이다’(52%), ‘낙태는 죄이다’(49%)라는 항목에는 절반 안팎만 동의해, 성윤리와 생명윤리에 대한 도덕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상태를 보였다.

[그림] 사회윤리(결혼과 생명) 인식 (매우+약간 동의한다 비율*, 미국 성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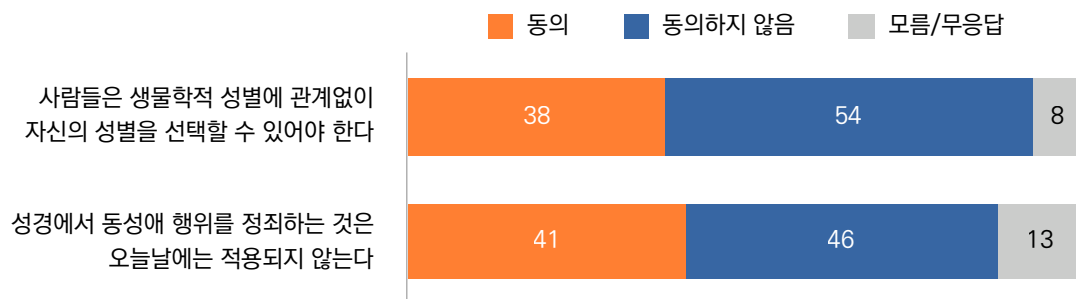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리고니어 신학 현황 2025’(Ligonier State of Theology 2025), 2025.09. (미국 성인 3,001명, 온라인 조사, 2025.01.06. ~01.15.)

*4점 척도

젠더 인식, ‘동성애 정죄는 시대 착오’ 41%!

- 이번에는 젠더 관련 인식을 살펴본다. 미국 성인 10명 중 4명가량(38%)은 ‘사람은 생물학적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해, 젠더 자율성을 긍정하는 인식을 보였다.
- 또, 41%는 ‘성경에서 동성애 행위를 정죄하는 것은 오늘날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해, 성윤리에 대한 성경적 기준이 점차 상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전체적으로 볼 때, 전통적 성윤리보다 개인의 선택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미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사회윤리(성과 젠더) 인식 (매우+약간 동의한다 비율*, 미국 성인, %)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리고니어 신학 현황 2025’(Ligonier State of Theology 2025), 2025.09. (미국 성인 3,001명, 온라인 조사, 2025.01.06. ~01.15.)

*4점 척도

이번호 요약

1. 미국인 62%,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

- 미국 성인(일반 국민)의 62%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미국 성인 63%, ‘혼자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 참석을 대체할 수 있다’!

- ‘교회 가지 않고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 참석을 대체할 수 있다’에 미국인의 63%가 동의해, 신앙의 개인화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3. ‘하나님은 결혼을 한 남자/한 여자가 하도록 창조했다’ 65%!

- 결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미국 성인의 65%는 ‘하나님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 지도록 창조하셨다’고 응답해, 전통적 결혼관을 지지하는 인식이 우세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서적] 순전한 기독교 (C.S.루이스/장경철, 이종태 역, 홍성사)

관련 성경 구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사도행전17:31)

목회 적용점

이번 ‘리고니어 신학 현황 2025’ 결과는 미국인의 기독교 인식이 세속적 가치 속에 복음적 전통성이 뒤섞인 혼합 신앙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 결과 미국 성인의 63%가 혼자 예배하는 것이 교회 출석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비기독교인을 포함한 일반인의 응답이지만 기독교 문화 중심 국가로서 그 안에는 교회에 소속된 신자들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제도권 교회를 벗어난 영성의 개인화 현상을 짐작케 한다. 실제로 최근 우리 연구소 조사에서도 한국 기독교인의 ‘영성의 개인화’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된 바 있다. 이런 현상으로 성도들의 향후 교회에 대한 충성도와 소속감이 약화되면서, 교회 출석을 또한 점차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목회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신앙의 개인화를 극복하는 ‘신앙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 서비스 제공 공간이 아닌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신앙공동체’다. 따라서 소그룹 사역 등 성도들이 개인적 신앙을 넘어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돌보는 공동체적 신앙의 가치를 경험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복음의 기초를 재무장하는 ‘신학 훈련 공동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수의 신성과 성경의 권위가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 약화되는 상황에서, 교회의 최우선 과제는 성도들의 영성 강화이다. 교회는 복음의 기초를 명확히 가르치고, 이를 변증할 수 있는 교육/훈련 공동체로 기능해야 한다. 성도 개개인을 대상으로 교리 교육과 신앙 상담을 강화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신앙 정체성을 세워야 할 것이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한국인의 주식투자 실태
2. 베이비붐 1세대(1955~1963년생)
의 노후 실태



[한국인의 주식투자 실태]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 주식 투자 참여!

- 2024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국내 개인 투자자는 1,410만 명에 달하며(한국예탁결제원, 2024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32%)꼴로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국내 주식 보유한 개인 투자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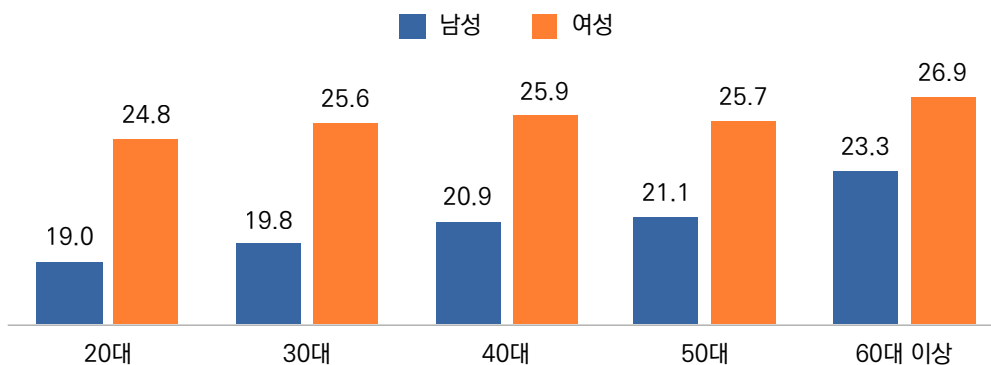
*출처 : 연합뉴스, 국내 개인 주식투자자 1천410만명...최대 큰손은 '50대', 2025.03.17.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7054600008>)

**출처 : 행정안전부, 2024년 12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

주식 수익률 1위, '60대 이상 여성'이 차지!

- 최근 종합주가지수가 4,000 포인트를 넘어설 정도로 주식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 연령별 투자 수익률을 살펴보았다. 올해들어 국내 주식 시장의 투자 수익률은 성/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수익률이 높았으며, 가장 높은 수익률은 '60대 이상 여성'(26.9%)이 기록해 주목된다.
- 이처럼 여성(특히 60대 이상)이 남성보다 투자 수익률이 높은 이유로는 '우량주'를 '장기' 보유한 것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그림] 성/연령별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 (2025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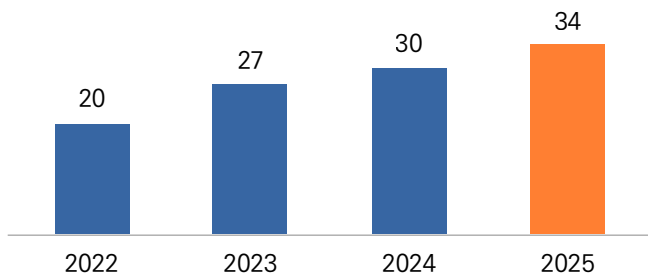


※출처 : 한겨레, '덜 사고 덜 판' 60대 여성, 올해 주식 수익률 1위, 2025.10.31.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226704.html>)

1억 이상 자산 보유자, 3명 중 1명(35%)은 MZ세대!

- 최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2026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트렌드'에 따르면 금융자산 1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 그룹에서 MZ세대(20~44세)의 비중은 2025년 34%로 2022년 20%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금융자산* 1억 이상 고객 중 MZ세대(20~44세)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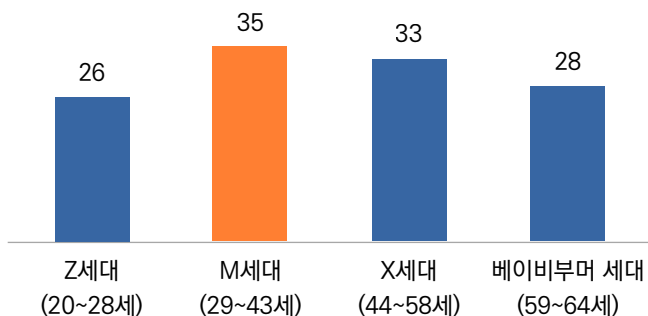
※출처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26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트렌드, 2025.10.

*금융자산은 예금, 적금과 같은 저축상품 예치 자산과 주식, 펀드, 가상자산 등 투자상품 예치 자산을 합한 액수임

M세대, 전 세대 중 가장 적극적 투자!

- 세대별 금융자산 중 투자자산(가상자산 포함) 비중을 분석한 결과, M세대(29~43세)가 35%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은 투자 참여 경향을 보였다.
- M세대와 함께 X세대(33%), Z세대(26%) 역시 금융 자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 상품에 할애하며 높은 투자 관심을 나타냈다.

[그림] 세대별* 금융자산 중 투자자산(가상자산 포함) 비중 (%)



※출처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26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트렌드, 202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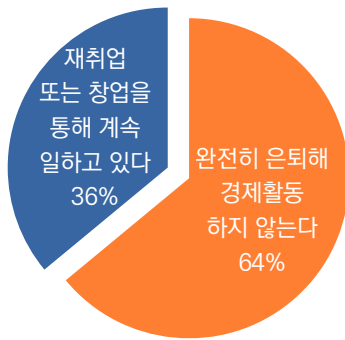
*세대별 출생 연도 2025년 기준 (Z세대: 1997년~2005년, M세대: 1982년~1996년, X세대: 1967년~1981년, 베이비부머 세대: 1961년~196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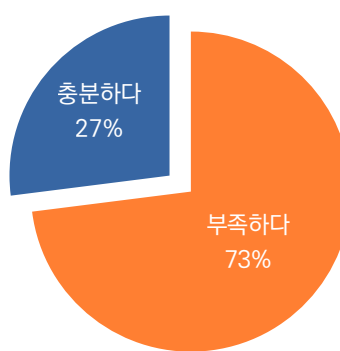
[베이비붐 1세대(1955~1963년생)의 노후 실태] 베이비붐 1세대 73%, 현재 노후 생활비 부족!

- 베이비붐 1세대(1955~1963년생)에 대한 조사를 최근 문화일보 창간 34주년 특집으로 진행했는데, 이중 이들 그룹의 노후 실태를 살펴본다.
- 현재 경제활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베이비붐 1세대 3명 중 2명(64%)은 '완전히 은퇴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36%는 '재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이유로 이들의 노후 생활비는 '부족하다'(73%)는 응답이 70%를 넘어 섰는데, 베이비붐 1세대의 상당수가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은퇴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현재 경제활동 여부 (베이비붐 1세대
(1955~1963년생, 62세~70세))



[그림] 현재 노후 생활비 (베이비붐 1세대
(1955~1963년생, 62세~7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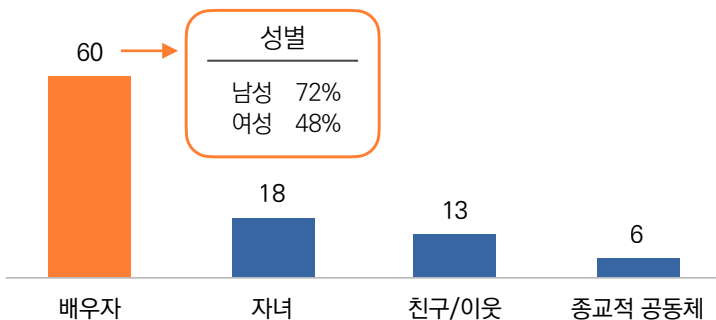


※출처 : 문화일보, 베이비붐 1세대 73.9% "은퇴 준비 부족했다"[창간 34주년 특집], 2025.10.30. (<https://www.munhwa.com/article/11543178>)
(조사개요: 1955~1963년 출생 베이비붐 1세대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5.10.17.~10.22., 엠브레인퍼블릭)

은퇴 후 가장 큰 정서적 지지자, '배우자'가 압도적 1위!

- 은퇴 후 가장 큰 정서적 지지자로는 '배우자'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어 '자녀' 18%, '친구/이웃' 13%, '종교적 공동체' 6% 순이었다.
- 특히 '배우자'를 꼽은 비율은 남성(72%)이 여성(48%)보다 훨씬 높아, 은퇴 후 남성이 여성보다 배우자에게 정서적으로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은퇴 후 가장 큰 정서적 지지자 (베이비붐 1세대(1955~1963년생), 상위 4개, %)



※출처 : 문화일보, 베이비붐 1세대 73.9% "은퇴 준비 부족했다"[창간 34주년 특집], 2025.10.30. (<https://www.munhwa.com/article/11543178>)
(조사개요: 1955~1963년 출생 베이비붐 1세대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5.10.17.~10.22., 엠브레인퍼블릭)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40호 \(2025년 11월 1주\)](#)

- 주변국 관계, APEC 정상회의, 대미 무역협상

[의원님 보유 부동산 평균 19.5억 ...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

매일경제_2025.11.4.

사회 일반

[다문화 혼인 5% 증가, 전체 혼인 10건 중 1건은 다문화 결혼](#)

조선일보_2025.11.6.

[한국 사는 외국인 '역대 최다'...총인구 5% 수준](#)

한국경제TV_2025.10.30.

[기초생활급여 받는 노인 5년 새 60% 증가...‘노후 빈곤’ 경고등](#)

여성신문_2025.11.6.

[\[기획\] 청년 기본수당 지급 조건 - 국민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한국교회 여론속의여론_2025.11.4.

[\[QS 2025 아시아 대학 평가\] 홍콩 12년 만에 1위, 한국은 톱 10 대학 '제로\(0\)'](#)

조선일보_2025.11.5.

아동 · 청소년 · 청년

[도박 빚 갚으려... 청소년들 불법도박-사기-절도 악순환 늘](#)

동아일보_2025.11.5.

[쉬웠음 1년새 7만3천명 늘어...청년층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연합뉴스_2025.11.5.

[2030세대는 '新자린고비' 열풍..."하루 지출 0원인 날도"](#)

조선일보_2025.11.8.

[2030 이공계 62% “3년 내 해외이직 고려”](#)

중앙일보_2025.11.4.

[20·30세대 10명 중 7명 “국민연금 신뢰 안한다”](#)

국민일보_2025.11.6.

경제 · 기업

["국민들 경제평가 2020년후 최저...개인행복도 하락세"](#)

연합뉴스_2025.11.6.

[성인 71% "노후 준비 중"...10명 중 6명은 "계층상승 어렵다"](#)

연합뉴스_2025.11.11.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물가 다시 들썩...10월 상승률 2.4%, 15개월 만에 최고\(종합\)](#)

[연합뉴스_2025.11.4.](#)

[코로나 때보다 실질 임금 줄어들어... "N잡러 증가는 예견된 일"](#)

[조선일보_2025.11.4.](#)

[\[오늘의 그래픽\] 직장인 절반 "유연근무 원해"...실제 활용률은 16%에 그쳐](#)

[뉴스1_2025.11.3.](#)

[\[사설\]중견기업 62% "퇴직 후 재고용 선호"... 대안으로 검토할 만](#)

[동아일보_2025.11.11.](#)

건강

[작년 283만명이 '마음의 병' 5년 만에 40% 가까이 늘어](#)

[조선일보_2025.11.7.](#)

[임신 중 코로나19 감염, 태아 뇌 발달에 영향...자폐증 위험 2.45배](#)

[동아일보_2025.11.3.](#)

기독교 · 종교

[인구 절벽인 교회학교 청년부, 지역교회 넘어 연합한다](#)

[국민일보_2025.11.6.](#)

[회심한 적 없이 교회 활동만 하시나요... "모태신앙인,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라"](#)

[국민일보_2025.11.6.](#)

[노회, 교회 잇는 허리], 국민일보

[〈상〉교회 세우는 보이지 않는 손 _2025.11.3.](#)

[〈하〉잊혀진 허리, 회복을 향하여 _2025.11.6.](#)

기획기사 : [창간 34주년 특집 - 베이비붐 1세대 '인생 2막' 리포트], 문화일보

(1)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무인 키오스크·앱 주문 불편하지 않다" 60.2% _2025.10.30.](#)

["나는 아직 노인이 아닌데... 사회서 할 수 있는 역할있어" _2025.10.30.](#)

[베이비붐 1세대 73.9% "은퇴 준비 부족했다" _2025.10.30.](#)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2) 벼랑에 선 은퇴자들

[유튜버 뛰어들었다 촬영장비값 날리고... 캐디 도전했다가 교육비만 뜯겨](#) _2025.10.31.

[연립 팔고 퇴직금 털어 겨우 '풀칠'... "내가 뭘 잘못했는지"](#) _2025.10.31.

[미국 베이비붐 1세대 "유산 남길 것" 22%뿐... 한국과 달리 가족보다 노후대비 우선](#) _2025.10.31.

[학력·소득 높지만 부모·자식 부양에 '등골' ... 정작 본인생계는 '셀프'](#) _2025.10.31.

(3) '월 60시간'에 갇힌 일자리

["기업 연공서열이 장벽... 정년연장·재고용 부담"](#) _2025.11.4.

[비용부담에 '쪼개진' 노인 일자리... "주15시간 넘게 일하고파"](#) _2025.11.4.

(4) 인구위기 속 은퇴자, '집' 아닌 '힘'으로

[산업·민주·디지털화 모두 겪은 세대... "경험·능력 살릴 일자리 필요"](#) _2025.11.5.

[취업·인력난·지역경제 위기 동시해결... '베이비부머 붐 업' 프로젝트 주목](#) _2025.11.5.

(5) 돌파구를 찾는 사람들

[시니어 보디빌더, 중장년 타깃 유튜버... "남은 인생 행복하게"](#) _2025.11.6.

[대학서 '재취업 특화 실무교육' 이수... "자격증이 연금보다 낫다"](#) _2025.11.6.

(6) '웰에이징'을 위해 10계명

["은퇴 준비에 가장 큰 적은 낙관주의... 40대 초부터 '제2의 직업' 준비해야"](#) _2025.11.7.

["은퇴 후 10년 이상 일할 수 있어야... 준비에 최소 5년 걸려"](#) _2025.11.7.

〈베이비붐 70년〉

[금융자산 10억 이상 '영리치'... 가상자산 보유율 29%로 '울드리치의 3배'](#) _2025.11.6.

['8090 호황기' 집으로 불리고... '저금리 시대' 연금·펀드·금 굴러](#) _2025.11.6.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술,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퓨처처치연구소(FCI),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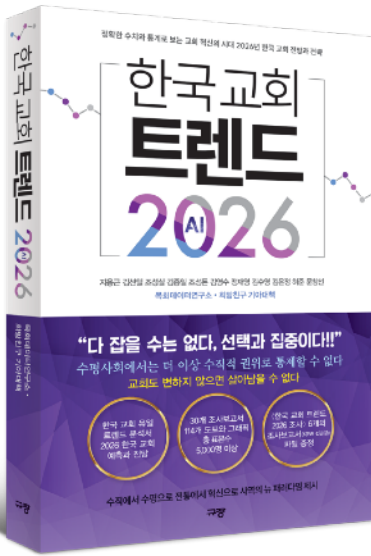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연구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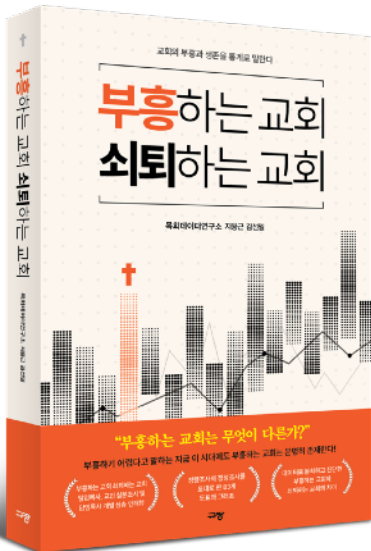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책 구입 안내

목회데이터연구소와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준비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2026년도 예상되는 한국교회 이슈와 트렌드 10가지를 주제로 선정하였는데, 이 책이 내년도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데 올바른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영민 간사)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책 구입 안내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를 출간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성도를 총 1,320명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영민 간사)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퓨처 처치 돌파 세미나

저희 연구소의 후원기관인 FCI(Future Church Institute)에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 1) 주제 : 꿈꾸는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
- 2) 일시 : 2025년 11월 17일(월) ~ 19일(수)
- 3) 장소 : 성시교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8)
- 4) 강사 : 명성훈 박사 (FCI 대표)
지용근 대표 (목회데이터연구소)
- 5) 접수 마감일 : 11월 14일(금)까지
- 6) 문의 : 김미경 간사 (010-7754-6803)

세미나 신청하기

THE BIGGER & BETTER CHURCH

퓨처처치 돌파세미나

꿈꾸는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

AGENDA

- 1강 : 퓨처 처치 행사전
- 2강 : 꿈이 현실이 되는 교회, 퓨처 처치
- 3강 : 퓨처 처치의 원형, 신약교회 사례연구
- 4강 :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 5강 : 성령의 침묵을 깨우는 7가지 관행
- 6강 : 퓨처처치 물줄기

강사

명성훈 박사
FCI 대표

지용근 대표
목회데이터연구소

2025.11.17(월) ~ 19(수)

성시교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8)

문의 : 김미경 간사(031-716-0091)

세미나 신청하기

퓨처처치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성시교회

2025 후원 이벤트

2025년 10월 30일~11월 10일까지 후원 이벤트를 통해(정기후원 52건, 일시후원 42건) 저희 연구소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꿈꾸는교회(담임목사 박종철), 문화촌성결교회(담임목사 한웅), 홍익교회(담임목사 손철구)

[기관]

JDM수원지구

[개인]

강동혁, 강홍준, 고경일, 구자억, 권명희, 권성구, 김근배, 김기영, 김석희, 김성환, 김승환, 김용철, 김유진, 김인규, 김재승, 김종규, 김종천, 김천종, 김태현, 김현모, 김호림, 김희동, 남궁민, 남기환, 노원경, 박동주, 박병기, 박재우, 박재찬, 박창주, 반기민, 방영민, 방의석, 백종석, 서경복, 서경하, 서계원, 서창민, 성영민, 손현수, 송용수, 송정은, 신승민, 신정섭, 양준철, 유소희, 이경만, 이경원, 이경호, 이규인, 이기도, 이기원, 이남호, 이대희, 이두희, 이사라, 이상복, 이성문, 이성봉, 이성수, 이승복, 이이삭, 이춘봉, 이춘성, 이하정, 이 현, 이희용, 임양섭, 임은경, 임정규, 전영삼, 정미라, 정병현, 정성민, 정화춘, 정희진, 최신후, 최영준, 최요셉, 최정호, 최종학, 최형규, 태원우, 하헌건, 한 관, 한스무, 한현수, 홍정호, 황인희, Shin Kim